


<div>교훈: 정직</div> <div></div>	가 정 통 신 문	제2020-133호
		담당: 교무기획부
	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	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71 ☎ 031-316-8712

보통 막대과자를 주고받는 날로 많이 알려져 있는 11월 11일은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인 동시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2001년부터 지정한 **지체장애인의 날**이기도 합니다. 11월 11일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로 구성되어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과 더불어 스스로를 첫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체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. ‘지체장애인의날’을 맞아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체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▶ 지체장애란 무엇일까요?

지체장애란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활동의 제약을 초래하는 신체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장애를 말합니다.

▶ 지체장애에 대한 편견

- *지체장애인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생한다.
- 지체장애인의 90%가 사고나 병에 의해 생기는 후천적 장애입니다.
- *지체장애인은 체육활동을 하지 못한다.
- 장애의 특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 많이 있습니다. 휠체어 댄스, 농구, 배구, 배드민턴 등 기구의 변형이나 방법의 변형 혹은 조금 다른 규칙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
- *지체장애인은 학습능력에 제한이 있다.
- 신체적 능력의 결함만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지능력과 학업성취능력은 일반화할 수 없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.

▶ 지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

- * 대화를 할 때에는 눈높이를 맞춰주세요.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대화할 때 눈높이를 맞춰 이야기해주세요.
- * 보장구를 함부로 만지지 말아주세요. 휠체어, 클러치(목발) 워커 등 사용자의 허락 없이 만지거나 옮기지 않도록 해주세요.
- *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땐 먼저 물어봐주세요.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“제가 도와드릴까요?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” 라고 물어봐주세요.

2020 . 11 . 11 .

시흥매화중학교장 [직인생략]